

악한 때에 의롭게 산사람

전병욱 목사

창세기 6:1-22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포스트모던시대라고 한다. 포스트모던이라는 어려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가? 혼합주의이다. 인도의 범신론같은 다신교적 요소들이 섞인 다분히 혼합주의적인 철학이다.

그래서 포스트모던의 영향으로 현대에는 예술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하는, 모든 분야의 경계가 사라지고 서로 섞여져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많은 젊은이들은 변증법적 사고에 젖어서, 절대 진리를 외치기보다는 혼합화를 다양성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신앙의 모델은 다니엘이었다.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것이 과거 젊은이들의 기도였다. 그런데 이제는 다니엘이 무모한 사람, 맹목적 신앙인의 상징이 되었다. 오히려 최근 기독교 젊은이들은 니고데모 스타일을 더 선호한다. 바리새인이었고 관원이었으며 예수도 믿었던, 3박자를 다 갖춘 '회색 신앙'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면 우선, 청년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길은 무엇인가? 여기서 결혼 문제부터 푸는 것이 순리이다. 결혼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다. 결국 신앙이란 그 사람이 내린 결정을 보면 알 수 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동은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결혼 문제부터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최근 젊은이들은 '숨은 7,000명 증후군' (왕상 19장)에 빠져 있다. 믿음이란 오로지 숨어서, 남모르게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믿음이란 드러내 놓고 주장하는 고백이다. 숨어 있지 말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노아처럼 믿음의 내용을 외쳐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다수에 속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항상 소수를 통해서 일하셨다. 그리고 그 소수에게 '은혜의 집중'이라고 말할 만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다.

어두운 시절에. 의인이 없으면 없을수록 오히려 나에게 더 많은 능력이 부여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청년정신이다

설교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외식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만이나 죄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두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모세오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섞는것'을 싫어하십니다. '혼합'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릴 때도 두 종류의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옷을 만들어 입을 때도 두 종류의 실을 섞어 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혼방옷은 입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밭을 갈 때도 소와 말을 함께 멍에 지워서 갈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음식이 '비빔밥'이라고 합니다. 비빔밥은 가장 비성경적인 밥이요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섞이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강조하는 것으로서는 가장 인상에 남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혼합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히 영적인 면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백성들과 혼합되는 것을 율법을 통해 강력히 금하셨습니다. 즉 이방 결혼을 금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순수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이방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년들 가운데 결혼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기도하지만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자는 대부분 두 사람의 믿음이 상대방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 성장하게 되는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는 비록 한사람의 믿음은 신실했었지만 불신결혼 후 믿음이 점차적으로 곤두박질치게 되어 급기야는 구원까지 흐릿해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문제를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1. 이방 결혼의 문제

창세기 6장 1-2절을 보면 “사람이 땅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일설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보고 사람의 딸들은 말 그대로 사람의 딸들이라 풀이하면서, 이 천사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인종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곧 네피림이고 고대 그리 이스의 영웅들이나 거인들이라는 신

화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근거 없는 것들이고, 가장 믿을 만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셋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 그들이 나중에 통혼하게 되었고, 그것이 타락으로 이어졌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제일 무난합니다. 원래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 서로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16절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땅으로 이주하여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셋의 후예는 어디인지는 몰라도 가인의 후예들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계가 갈라진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의 자손은 에덴 시대이후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복락원하기 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다시금 낙원을 만들려는 교만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낸 것이 도시, 문화, 음악, 문명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룩하겠다며 가인은 자신의 아들 이름을 붙인 ' 에녹성' 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최초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야발이라는 사람은 목축업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이라는 사람은 세속음악의 창시자가 되었으며,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금속문명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는 세속문명의 창시자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셋의 후예들은 소박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 '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많은 인구증가로 말미암아 서로 접촉이 없던 두 가계가 비로소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문화와 문화와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문화와 세속문화와의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꾸미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왜? 육체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앙이 좋은 자매들을 보면 조금 촌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또 예수 잘 믿는 형제들을 봐도 촌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사회는 하나님을 거부하였으므로 오직 세상에만 낙이 있습니다. 결국 죽으면 지옥에 갈 인생들이기 때문에 삶의 승부를 온통 육체에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매들 중에는, 돈 생기면 성형수술하고 깍 끼는 청바지를 사 입고 가짜 눈썹도 붙이고 얼굴에 몇 겹씩 덧칠하는 일에 시간을 소모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쨌든간에 그렇게 하고 다니면 보기에 는 좋다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 남자들이 이런 가인 집안의 여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밤낮 테레사수녀 같은 얼굴만 보다가 샤론 스톤 같은 여자를 보게 되니, 눈이 뒤집힙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런 무통들하고 살았던 과거의 인생이 억울하다!" 그리고는 육체만 가꾸는 가인의 후손 출신 여인들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통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아름다움 뒤에 숨겨져 있는 덫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미는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기 마련이듯, 그들은 사람의 아름다움만을 보고 자기 멋대로 결혼했다가 결국에는 모든 영적인 간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창세기 6장과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도 평상시에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믿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고, 결국 불신 결혼을 하곤 합니다. 형제들도 마냥 예쁘고 늘씬한 여자들만 찾아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한 뒤에 크나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은 자기 신앙의 고백입니다. 말로는 믿음이 최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결혼하는 것을 봐야 그의 참 믿음이 드러납니다. 한 가문에서 무엇을 중요시하는가는 그들이 결혼할 때 비로소 밝혀집니다. 한 청년과 처녀의 믿음은, 그들이 결혼할 때 결정하는 내용을 통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영적인 것입니다. 결혼은 자신의 신앙을 보여 주는 중요한 시금석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많은 달란트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방여인들을 후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여자들만 들여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까지도 들여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녕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칠백 인이요 빈장이 삼백 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처럼 기가 막힌 지혜가 있던 왕도 부인을 잘못 얻음으로 말미암아 왕비들에 의해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결국은 이방의 신들을 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시험 삼아서 수요일 같은 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가자고 할 때 찬성하는 여자가 있다면, 이런 여자는 모두 이세벨 같은 사람입니다. 물어보나마나 앞날이 암담하고 그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몸이 개에게 뜯기우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아합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관찮은 왕이었습니다. 겸손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무엇보다도 선지자들이 말하면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같은 여자를 만난 후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다가 개들에게 자신의 시체를 뜯기우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불신 결혼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 20대의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일반적으로 20대에 결혼하고 싶은 이상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30대가 되면 20대와는 다른 좋은 여자의 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40대에도 또 그 나이에 알맞은 여자의 상이 생기고, 50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한사람과 만나 사는 기간이 짧게는 20-30년. 짧게는 50-60년인데 그 긴 시간을 20대의 미숙한 시각으로 결정해 버린 후 평생 동안 괴로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흔히 20대에 중요시하는 것은 거죽. 즉 외모입니다. 모두들 얼굴이 예쁘고 깨끗한 여자들과 키 크고 능력 있는 남자들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단지 여인의 고운 얼굴이나 남자의 흰칠한 키가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연히 쓸데없는 것을 구하다가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믿음 좋고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넘쳐나는 사람을 찾아야 미래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제 동기나 후배 정도 되는 사람 중에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난 미모와 능력을 갖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의 경우, 자신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예쁘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조건이 좋은 남자들만 찾았습니다. 마침내 일류대학 출신의 키 크고 멋있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4-5년이 지난 후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매일 구타당했다거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요즘도 만나기만 하면 죽고 싶다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지겨울 수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반면에 후배 중에 능력도 많지 않고 살림이나 잘할것 같은, '보는 견해에 따라 미

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에게는 한 가지 지혜가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다른 것 다 안 보고 그 사람의 믿음과 가능성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더니 결국 그런 사람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에는 그다지 앞서가는 것 같지 않았는데, 부부가 함께 새벽기도도 다니고 그러더니 이제는 사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잉꼬부부라는 소리도 듣고 언제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가장 앞선 인생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비전이 중요하듯, 국가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에 축복이 임할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2. 혼합주의를 버리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혼합한 곳에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섞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단이란 무엇입니까? 다를 이(異)' 와 ' 끝 단(端)' 입니다. 즉 이단이란 '끝이 다른 것' 을 뜻합니다. 실제로 이단을 보면 처음에는 어느 교회와 다를 바 없는 것 같은데 끝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섞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 예로, 어느 나라에 돌 조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특별히 사람의 형상을 잘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이 너무 간단했습니다. 우선 어떤 돌을 보고 나서 그 중에 사람 같지 않은 부분만 쪼아냈더니 결국 사람의 모습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후에, 그에 기반하여 교회에서 교회답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하나씩 제거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자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에 대해 고린도전서 2장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안에서 말하노라."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막 섞여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수다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혼합하게 만들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순전함으로 하나님

게 받은 복음만을 증거하겠다는 사도바울의 결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로지 순전하게 행하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무너지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만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대체로 목사님들이 똑똑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너무 자신의 머리만 의지하면 그 교회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조금은 어리숙하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우 똑똑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는 여러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도 바울이 실패했던 곳이 있었는데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했었던 것과는 달리,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의 학문적 지식을 통해 그들을 설복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등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복음만 증거해도 될 것을 여러 가지 철학적인 접근을 통해 현학적으로 전하려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전도는 커녕 사람들 사이에 논쟁만 일어났습니다. 결국 아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했고, 그곳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유일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이러한 뼈아픈 실패를 안고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나니.” 십자가 복음외에 다른 것을 전했더니 결국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증거해야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이제까지 알고자 했던 세상의 지혜 같은 헛된 것들을 모두 다 십자가에 못박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적으로 너무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목사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목회에 지장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 학문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성도들이 따라올 수 없고 목사는 스스로 자기 학문의 유희 속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와 기도는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지금 자기가 하는 학문이 '살리는 학문' 이 아니라 '즐기는 학문' 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잠시 중단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들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운동이란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 말씀을 온통 혼잡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순수한 하나님 말씀’으로의 회귀는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 오직 주만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애굽도 의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다리 걸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쳐버리셨습니다. 우리도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세상적인 방법들을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내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한 가지 카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버리시면 꼼짝없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셔도 살 길이 있다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떠난 목사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 죽게 됩니다. 그것이 주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전체를 통해 오로지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밖에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된다 하시면 되는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이적들이 나타났으며.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 때 믿고 채우는 사람들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고 성에서 승리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돌았던 그들의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흥을 이루고 이 땅에서 큰일을 하게 되는 것은, 특별히 머리를 잘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면, 한 단계 높은 지식으로 말미암은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부터 믿을 것이 아니라 순종부터 배워서 순종을 통한 지식의 넓어짐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합니다.

3. 홀로 서기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노아 시대의 영

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는 죄악이 관영하여 가득 차다 못해 흘러 넘쳤으며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들은 악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을 속이고 죽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 전부 악한 것들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울지에 대해서만 관심 있고, 어떻게 하면 속이고 부정을 행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가 악할 때는 선한 사람들이 살기가 더욱 힘듭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하였듯이 말세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노아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채 오로지 일상생활에만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대한 예배나 우리의 영적 사명들을 잃어버린 채 삶에 몰두되어 있는 모습들이. 멸망했던 노아시대 그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너무 바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드릴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쁜 것은 우리에게 있어 범죄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정신없이 뛰다가 주일이 되어서야 겨우 주일인 것을 깨닫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마실지, 어디로 시집가고 장가갈지. 그런 생각들로만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멸망하는 날까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사명은 무엇이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각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텅 빈 삶을 살면서 무엇이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사고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시대의 상황이자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현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백화점 종업원이 실수로 옷의 가격표에 동그라미 하나가 더 있는지 알고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30만원짜리를 300만원에 판 셈인데, 어이없게도 하루가 지나도록 그 가격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그 가격에도 그것을 좋다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싸면 잘 팔리는 이상한 풍조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제가 대학 다닐 당시에는 청바지 하나에 2-3만원이면 매우 비싼 가격이었었는데 그것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욕을 하면서도 한 사람 두 사람 점차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거리는 말머리 마크의 청바지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개성도 없이, 소신도 없

이, 누구나 입으니까 나도 입겠다는 생각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것이 과연 성도로서 마땅한 바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깐 그대로 쫓아가는 것은 노아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시류에 영합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마귀는 지금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려 하고 있고 그것들을 쫓아가도록 사회적인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는 홀로 서야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였는데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온갖 부패와 폭력이 만무했던 시대에도 우뚝 선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한시대마다 남아 있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라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또 엘리야의 시대에는 엘리야같이 남아 있는 사람을 통해서, 기드온의 시대에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악할 때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한탄만 하지 않습니다. 그 때에 그들은 조용히 어두움 가운데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찾아다닙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한 시대마다 반드시 그루터기로서의 교회와 인재는 존재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캠퍼스가 다 죽어간다고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도 살아있는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을 붙들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가던 것이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온통 악의 지배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도 여전히 믿음의 정조를 곳곳이 지키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성령의 등불을 붙들도록 하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시대로부터 우리가 얻는 최고의 교훈은,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가 먼저 그루터기가 되어야 하며, 남아 있는 또 다른 그루터기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노아가 되어, 방주를 만들고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흥한다고 해서 무작정 자랑스러워 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단지 예배만 드리게 하고 보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품고 있는 비전들과 능력들에 불을 붙여서 자꾸만 밖으로 파송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캠퍼스가 뒤집히고 직장과 가정의 뒤집히며 그들이 모이는 곳마다 변화되는, 하나님의 횃불이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10세기경에 영적 파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루터기는 성 프란체스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프란체스코의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시대의 어두움 가운데 불을 밝히셨습니다. 16세기에는 말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라는 그루터기와 존 칼빈이라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셨습니다. 19세기에는 영국이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7세기부터 웨슬리의 기도와 스피전의 설교를 통해서 영국의 암흑을 환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차 점장이들이 판을 치고 무당이 활개를 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루터기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노아라는 것을 깨달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는 구절은 비록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한사람만이 제대로 서 있었으므로 모든 은혜가 그에게 '집중'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노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 됩니다. 많은 교회가 잠자고 있다고 해서 낙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비록 많은 교회가 자고 있어도 깨어 있는 한 교회에 다른 교회들에게 돌아갈 몫의 은혜까지 집중적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기만 하면 다른 때 받았던 은혜의 100배, 1000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항상 우리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교목님이 계셨는데 갈 때마다 차를 잘 주셨습니다. 어느날 차를 마시러 갔는데 목사님이 제게 홍차 한잔을 내 주시면서, 홍차의 원래 색깔을 아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모른다고 대답하였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홍차의 원래 색깔은 브라운색인데, 홍차의 그 브라운색에 레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전체

가 노란색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홍차의 색깔을 노란색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 의미가 바로 이 홍차 속에 들어 있는 레몬 한 방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비율에 있어서는 매우 적은 양일지 모르지만 떨어지는 순간, 그 레몬 한 방울이 홍차 전체의 색깔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명력 있는 소수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홍차 속에 들어 있는 한 방울의 레몬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수 때문에 밀리지는 말자는 얘기입니다. 홍차속에 아무리 많은 내용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방울의 레몬이 떨어지면 다 레몬 색깔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우리의 색깔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6장이 주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처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기원합니다.